
2012년 신년사

국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입니다.

용기,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의 해에 여러분 모두 가슴에 큰 소망을 품고 열정을 발휘해 풍성한 결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의 대중화,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불붙은 스마트 혁명은 올해 스마트TV로 이어지며 새로운 스마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글로벌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IT 발전사를 살펴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정부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의 정부 주도의 전전자교환기(TDX) 개발, 90년대의 CDMA 이동전화 세계최초 상용화, 2000년대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통해 우리는 IT강국,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 전부분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혁명은 정부에 새로운 '스마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1위, 4G 서비스 개시 등 우리 기업들은 이미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을 지닌 우리의 IT기업들과 중소기업·인 창조기업들이
상생협력하고,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와 기기를 아우르는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우리 IT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스마트 생태계 환경조성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IT강국을 넘어 스마트선진국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TV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7대 스마트 신산업을
집중 투자하고, 인터넷비즈니스 창업과 중소벤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창조적 기업들을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방송역사의 큰 이정표가 될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신규 기존 방송
사업자간에 건전한 경쟁구도를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EBS 공교육 보완기능을 강화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소통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재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규제완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유수불부(流水不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스마트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스마트시대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를 밝힙니다.

임진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